朝鮮日報

朝刊夕刊合六面

購讀料 朝夕刊一個月金[illegible] 夕刊一個月金[illegible] 月先金貳圓九拾錢 六個月先金五圓七拾五錢(郵稅本社負擔)
廣告料 五號拾四字壹行壹圓 [illegible] 八拾錢 [illegible] 指定料五號每壹行參拾錢
發行人 安在鴻　編輯人 白寬洙　印刷人 [illegible]
發行所 朝鮮日報社 京城府堅志洞三二

論說

周衣廢止論

生活改善의一端

一

朝鮮人生活改善의 한가지일로 周衣의廢止를提唱한다 即 通常服으로서 두루마이입는것은 그만두자는말이다 朝鮮衣服을 改良할바잇스니 그는衣服樣式보담도 먼저그材料를改良하여야할것이다 衣要하고 어서 風雨에잘견데고 입고서 動作하기에 恪便할바업슬만큼 實用的으로된것을 맨들어야할것이니 이는衣服改良問題보다도 紡織 染織및其他一般織組工業의問題이지마는 그着用하는習慣으로서 우선周衣의廢止를斷行하도록함이 조흘것이다

二

周衣를입는것이 두가지必要가잇스니 그는氣候이나쁜때에 防寒을爲함과 및儀容을두미는 禮服으로서입는것이다 그런故로 周衣를입는다하면 秋冬寒冷한때에 되도록堅實한감으로서 實用的으로된것을입도록할것이오 其他에는不得已한 必要한때에應하야 禮服으로서입을것이다 이兩者를爲한때는論할바아니지마는 平常時에이것을입을때에는 몸이거북하여動作이不便하니아니되엇고無用한費用이걸리니또아니되엇다 이것을廢止함으로 動作도輕便하게하고 또生活費를 節約할수잇스면 그야말로一擧兩得일것이다 묵은習慣이이것을躊躇하게하지마는 이것을斷行하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아니할것이오個人으로서 率先躬行 하기거북하면 團結로서시작함도조흘것이다 周衣廢止會를만드는것도 不可할것업고 다른社交的 或은政治的團體로서도 周衣廢止 結局은着用制限을 그의風俗改良의一科目으로함도조흘것이다

三

겨울에周衣를 平常으로입는것은조타 그러나입기로만 알드는것은 솜을두터히두어도업마아니가서 떠기떠기구기고또 압자락이 벌어지는법이잇스니 볼품사나운때가 엇다이것을改善할必要는 위에도 말하얏다 그러나 盛한여름 한텨위에도 반드시出入할때 周衣를입으니 알고고흔모시나 或은其他麻布類로하지아니할수업다 겹으로입으니 엷배기쉬웁고風雨만흔季節에 후줄근기쉬웁고 한블며알고 처렁대여서 動作에거북하니 生活上에不便이만흐며 재조빨지아니하면 모양이몰이어조타하고 재조빨어고처기로하면 時間과工力과빨어서浪費가만허지니 必要치아니한걱정거리를着用者로서마럿고 必要업는괴롭거리와 消耗만더내게되는것이다 이것을廢止하되더욱여름으로서斷行할것이니 그는 衛生 經濟 事務能率等을爲하야必要하고 또家庭婦女들을解放식히는데도 퍽有助할것이다 周衣를廢止하면 쏭지배진새갓다고 蔑意를表치안는편도잇스나 반듯이感服할수업다

四

周衣를입기조아하는 朝鮮人은 洋服生活에도 影響이미츠다 洋服을입으되반듯이外套를입으니 外套를입는것은 防寒의必要나잇것지마는 봄에 ㅅㅅ무렵ㅅ 을입고 일흔여름을지버 衣裳은모드다「스프링」을입어맛습이면여간所謂하이칼라인者가 아니지마는 어려운돈에「스프링」을입고나서지아니하면 속이풀리지안는것은 周衣입기에인이박혀서 강용하니나서기가겁잔처못해보이다는 薄弱한理由에因함이다 朝鮮은古來로禮義의邦으로일컬어 衣裳의制度를東히알엇섯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을고쳐야 하게되엇다 周衣廢止가큰것은時急하다 夏날리는한두루막이를입고 역국과비방울에망사리지아니할수업는옥조히사람들의生活을爲하여욱이崇高關하고싶을다

會議缺裂責任을 米에轉嫁코저攻擊

(英國態度와米大官談)

(華盛頓電) 英國의米國新聞은 英吉利의立場이언케던지 英吉利를不利의立場에置하게한다고抗議를하엿다는說이傳하는바米當局은此에조금도干涉하려고도하지안흐며더욱이正式의抗議가來하지아니한바 英吉利의主張은다만그內政及國威에關한것만爲主하야이제로부터巡洋艦만을要求하는것으로觀測되는바亞米利加는英吉利가亞米利加에對하야有利한것으로示하는데는總히不滿으로드되어憤慨한다는데亞米利加某大官은本日英吉利는萬若今番에「저네바」會議가失敗한다면此의責任은避하야亞米利加에轉嫁하기爲하야亞米利加를攻擊하는것으로觀測된다고語하엿다더라

芳澤公使上海行 不當課稅問題折衝

(東京電) 歸朝中의芳澤公使는二十七日午後二時外務省에서出淵次官과會見하고東方會議의決定에依한新對中方針의實行方法等에就하야協議하얏는데南京上海及南京의當局과交涉하려고北京歸任의途에上海를經由할터인바南京에서는特히蔣介石氏와會見하고日本商人의復歸及不當課稅問題에就하야懇談할터이더라

臺銀『吾』三十日支拂

(東京電) 旣報井上日銀總裁가首相及藏相에게臺銀의『吾』을三十日支拂하기로諒解를求한바大藏省은臺銀에對하야來三十日에支拂하기로命令을發하리라더라

出張官憲權限 擴張決定

(東京電) 田中外相就任以來外交事務의敏活策을考究中이든바今回出張官憲의權限擴張의件을決定하엿다 即從來出先外交官은各一般의外交事務處理에當하야될수잇는대로本國政府의請訓을하고本省의訓電을待하야事務에着手하엿스나이外에가장機敏을要할對中外交와如한것은好機를逸하야悔를將來에남긴事實에鑑하야出先外交官에게는大綱을訓電함에쓰치고大體外交官의自由裁量으로適宜한措置를取하게하기로되엇더라

井上日銀總裁 首相藏相訪問

(東京電) 井上日銀總裁는二十七日午前九時田中首相을官邸로訪問하고二十六日臺銀株主總會의結果를報告한後『吾』返濟期日을三十日로하는것이適當하다고意見을述하고歸去하얏는데正午에다시大藏省에三土藏相을訪問하얏더라

經濟斷交同盟解散

(上海電) 當地排日運動은中央執行委員會의幹部로大部分이엇스며其外國民政府의警告가出하기때문에조금도氣勢가揚치안는외中國人商의鼻息이荒하여저外幹部等도速速今月內로對日經濟斷交大同盟會의大看板을떼고解散하기로되엇다는說이잇는同時에今日까지山東出兵을攻擊하는者가急變하야모다日本의歡心을求하는態度가보인다더라

擴張은必拒絶 日本의對策

(東京電) 再開會의軍縮會議에備할對策協議를爲하야二十六日午後七時半부터濱相官邸에臨時首腦部會議를開하고三時間에亘하야鳩首凝議를하엿다 即諸情報를綜合하면『쎄릿치만』全權等이歸英後의態度는從來의主張을全然一變하야軟化한것이라고생각할수업다此에對한米國의態度도亦是當分의主張을屈할說話이업고보아서會議의前途는依然히樂觀을不許하는狀態이다 그런데右는當局의綜合的觀測으로目下極秘에附하엿다英國의態度가再會議에臨하야는或은幾分讓步할것을示하되英米의妥協氣運을促進시킬處地에處할對策도亦考慮하야對할必要가잇다할아서日本政府로서는英米의出兵如何에依하야決코어느便에치우칠이업시和協的에備하야적어도擴張이될諸主張에對하야는斷然拒絶하기로一決하고十時半에散會하엿더라

競馬規則改案成立

(東京電) 內務農林兩省에서는畜產獎勵의輿論에副하기爲하야地方競馬規則의改正을斷行하려고調查中이든바今番그成案을어더八月十日頃에公布하기로되엇다地方競馬는一府縣一箇所乃至二個所로限하고最高各十圓으로하고一人十回以上의投票를許하며入場料는十圓을超하지못하고畜產組合主催에限하야一組合二回(年)以下로한다더라

陸軍異動

(東京電) 二十七日左와如히陸軍異動을發表하얏다

步兵第七十五聯隊附 步兵中佐 戶川廣忠
免本職待命被仰付
第二十師團司令部附 步兵中佐 小口直人
免本職 步兵第三聯隊附
步兵中佐 步兵第七十五聯隊附 池田武
免本職補步兵第十三聯隊附
熊本醫科大學服務를命함
步兵第八十聯隊大隊長 步兵少佐 島山政之丞
免本職補步兵第二十聯隊附
臨濟宗大學兼花園中學服務를命함
步兵第八十聯隊附 步兵少佐 田中省三郞
免本職補步兵第三十七聯隊附

元山綿布類 輸入逐日增加

本年六月中元山에輸入된日本品綿布類(朝鮮人專用)의總價格은一萬二千一百圓에達하엿는데其主要商品은左와如하며輸入傾向은逐日增加하는狀態이라더라(元山)

▲法被二、一五二圓▲假法被二一七圓▲敎官紗八五圓▲帶地甲斐絹七三二圓▲熟素四九○圓▲紋熟素一二○圓▲紋純仁四八二圓▲人絹及綿交織布一、四三五圓▲人造絹布五、一○二圓▲其他七二圓

北滿農務會 禁酒令發布 違反者는罰金

北滿海林에잇는韓人農務會에서는次次로農閑期가됨을따라地方住民等의高利付의金錢을借得하야亂飮濫用하야經濟上에不少한關係가잇슬뿐아니라地方風紀가紊亂하야가는影響이잇슴으로이를防禦하기爲하야本月二十三日에禁酒令을發布하고違反者는一元以上三十元以下의罰金에處한다더라(海林)

元山輸入의 滿洲粟 七月中二萬餘袋

本月中元山輸入의滿洲粟은二十五日外지陸路로一萬五千五百三十八袋海路로七千八百八十袋合計二萬三千四百十八袋임에此에對한稅關鑑定價格은二十三萬四千一百八十圓이라더라(元山)

全州運送店 合同不可能?

全鮮各驛頭에서貨物取扱하는運送店은今春以來各地에서合同說이잇자全州에서도運送店株式會社를創立하려고這間朴魯侏君外二三人의發起로各運送店과妥協中이야즉圓滿한解結의曙光이보히지안흠으로方今三成運送店과ᄋᄋ運送店만合同하야事務를取扱한다는데아즉은三成運送店名義로各地에託送한다더라(全州)

熙川敎會經營 養成校曙光 舍建寄金遝至

平北熙川郡內耶蘇敎에서經營하는養成學校는校舍이狹窄하야多大한困難을늣기든바今般校友와其外有志의熱誠으로新建築을斷行한바約三千五百圓豫算中募集된金額과氏名은左와如하며其他不足額은一般有志의同情을바란다더라(熙川)

◇義捐金額

▲閔燮道七百圓▲寧邊郡內文約翰百圓▲平壤南山峴孫昌根百圓▲吳允浩三十圓▲朱榮雲百圓▲金鼎華百圓▲金峯吉二十圓▲金景珍七十圓▲金義珍六十圓▲嚴永道二十圓▲崔炳柱二十圓▲尹甲得十圓▲黃基使十圓▲金光國十圓▲張允銘十圓▲金寶珍十圓▲金鼎鉉六圓▲黃明根五十圓▲劉順錫二十圓▲金義恭二十圓▲李昌植十圓▲宋炳泰十圓▲弓鼎燮十圓▲崔明輝十圓▲崔有欽百圓▲張芝廈二十圓▲尹鳳汝十五圓▲朴今津十圓▲張龍化五圓▲南光明五圓

平壤勞聯盟 執行委員會 ◇七條項決議

平壤의勞働聯盟에서는去二十七日午後九時부터鍾路里會館內에서第二回執行委員會를議永龍氏의司會로開催하고如左한事項을決議하엿다더라(平壤)

◇決議事項

一、規約改正에關한件
一、機關紙發行에關한件
一、負擔金에關한件
一、全朝鮮勞働運動者大會에關한件
一、社會團體協會組織에關한件
一、反動團體及反動分子撲滅의關한件
一、勞總顚末報告書에關한件

華川模範村 龍岩里의農改

江原道華川에서는去二十日郡農會主催下에郡內有志를網羅한五十餘名觀察團員이下南面龍岩里를模範改良模範村이라하야觀察하엿는데本里는有力靑年吉浩陽吉南植兩氏의發起로農聽靑年會가생긴以後村民이一心合力하야副業獎勵에努力한結果副業模範村으로有名하든中特히本面長崔用求氏와勸業係吳好武氏가新任된後堆肥舍建設、養豚、養鷄에一層指導와努力으로今日에至하여는郡內有志들이觀察까지하게된『模範村』이바郡員은모다『實可謂模範村』이라고感服하엿스며딸어서當局의指導와農聽靑年會員들의熱誠을稱頌한다더라(華川)

間島附加稅問題 ◇二分五厘로妥協?

稅關附加稅問題에對하야日中兩國의氣勢가매우險惡化하다하든바數次報道한바어니와本問題에就하야지난十五日以來로日高丙子郞氏가日中兩方에頻頻히妥協을斡旋하야오든바意思는互相接近하야此問題는妥協함에至하얏는데此에對한二分五厘附加稅妥協交涉經過報告大會를去十七日午後八時에間島公會堂에서開하고委員長本茂一郞氏로부터大會成立以來의經過報告事項及二分五厘案이妥協되기까지의顚末을報告하엿는데此에對하야日本商人側에서는激烈한反對가잇서形勢는實로容易치아니하엿스으로日高氏와本氏를專橫處置라고攻擊하는同時에不滿의聲을連呼하엿스나結局十一時頃에各各散會하엿다더라(間島)

華農靑年會臨總

華川邑內華農靑年會에서는지난廿三日午後九時부터華川基督館에서張仁和氏司會로臨時總會를開催하얏는데張好璧氏의經過報告와張仁和氏의全江原道社會運動團體大會顚末報告가잇슨後臨時議長張好璧氏를選擧하고委員補選과諸般決議事項을圓滿討議한後來賓李濟俊氏의熱烈한祝辭로同十一時半에閉會하얏는바決議事項과補選委員은如左하다더라(華川)

◇決議事項

一、全江原道靑年聯盟加入의件
一、會則改正에關한件
一、朝鮮農民社支社設置에關한件
一、不正會員處置의件
一、本會維持에關한件
一、執行委員補選에關한件
一、會員禁酒에關한件

◇補選委員

金宗泰 李奎龍 金命國 泰鎭 金千秋

江景勞聖學院의 少年少女雄辯會 ◇暗黑農村에警鐘

江景市外長曾里勞聖學院에서는夏期休暇를利用하야少年少女雄辯大會를去二十日午後八時부터開催하리라함은旣報한바어니와當日은마츰雨天임으로不得已順延하야翌日에開催케되엇든바定刻前부터雲集하는群衆은無慮千餘에達하엿스며天眞한少年男女의淸雅한音樂과熱烈한雄辯은滿場聽衆의耳目을聳動케하엿는데그中에도神魂을飛散케한것은該校一年生兪光楨(八)君의『農村의少年은責任이重하다』고하엿습니다우리는하로밧비熟心으로工夫를하야泰山과가튼責任을다하지아니하면 아니되겟습니다』라는熱辯이엇고一年生(女)李李雨(八)嬢의『우리가하로밧비工夫를잘하여야男子에게기막힌虐待를아니밧겟습니다』라는熱辯이잇고五年生宋宗順(十六)君의『李朝五百年 封建制度밑에에짓밟힌우리의自由를찾자우리들無產農民을爲하야그封建制度가하로밧비顚覆되엇드면오늘날우리가이와가튼慘境에싸지지아니하엿스리라』는말은實로感歎하야마지아니하엿스며第二年生(女)朴芳禮(十二)『우리도社會에一員이되어國家를爲하야民族을爲하야社會를爲하야엇슬일을하리라하여서못쓸것이무엇입니까』하는말에數百의農村婦女는북노코운들우는이도잇섯스며其外十餘辯士의熱辯은하나도눈물아니날업섯고하나도피아니난것이업섯스며淸雅한音樂은苦役에시달리든이들農民의心神을慰勞하엿고熱血이湧躍하는四節校歌는뜻잇는사람으로하야금주먹을부르쥐지안을수가업섯다더라(江景)

全巨濟少年 懸賞雄辯會 八月二日開催

巨濟巨濟少年聯盟에서는全巨濟少年懸賞雄辯大會를來八月二日二運靑年會館內에서開催한다는데志願人士는巨濟靑年聯盟으로보내주기를바란다하며準備委員들은準備에紛忙中이며今般雄辯大會는大盛況을豫期하며傍聽도多數來參하기를바란다더라(巨濟)

黃州和洞里 『반달사』講座 農民熱心聽講

黃州郡九聖面和洞里에서農村文化向上을目的하고組織한『반달사』에서는農村時事講座를設置하고隔日로新聞雜誌其他重要한時事를一般農民에게聽講케한다는데附近各洞農民들은多大한趣味를가지고終日勞役에疲困할도생각지아니하고多數히會集하야熟心으로聽講한다더라(黃州)

東興學生暴行과 間島社會輿論에對하야

京城에서 李鍾鼎

間島東興中學校學友會代表와生徒멧사람이中外日報間島支局長全盛鎬氏에게『向者同報紙上에東興學校中國公立運動云云』이라는記事를揭載하야同校精神을中傷하엿다는理由로말할수업는暴行을加하엿든事實은 報에도屢次그詳細를報道한바잇섯거니와이로因하야間島一部社會輿論은極度로激昂되어各社會團體代表와一部有志들은同事件調查檢討會를組織하고爾來各方面에亘하야調查檢討를거듭한結果지난十八日第二回執行委員會에서는同事件檢討會를東興學校埋葬策講究會로그名稱을變更하는同時에이目的을徹底히實行하기爲하야根本的埋葬策으로七大條項을決議하고執行委員二十人과常務委員十三名外지增選하엿다한다 듯기만하여도事態는자못重大한듯하며間島同胞의敎育界에잇서一大不祥事라고아니할수업다 學生의直接行動?아니暴行事件이란그理由如何를不問하고또는個人的이거나成群的임을勿論하고校內에잇서서나校外에잇서서나間島에만잇는것은아니다 적어도오늘날우리朝鮮學生界를通하야種種으로보고듯는事實이라고하겟다 이와가튼事實은恒常感情이銳敏하고血氣가强壯한中等學校生徒들에게서자조發生되는일이오또는그들에게가장잇기쉬운일이라고하겟다 그러나間島學生界에서처럼이러한不祥事實이자조發生되는데는 天下에그類例가드믈것이다 이것은地域上으로보아서○○○思想이 그들을물어서種種으로 그와가큰行動을取하지아니치못하게함에도一理가업는것은아니나 大體로보아서는 校當局者들의指導와監督이 其宜를得치못하고生徒들에게 넘우나지나치는自由思想을鼓吹한데에잇서 基因함이고볼수잇다 더욱히今般事件가튼것은 그중에도苛酷한者이오 딸아서社會의輿論이惹起함도當然한일이라고할것이다 그러타 어느程度外지의 社會制裁는잇서야할것이다 그러나今般檢討會의決議(昨紙朝刊參照)는 넘우나酷毒한바잇스니 그것은東興中學校를永永히 埋葬하는同時에校當局者全部를間島로부터逐出하자함에잇다 나는이케諸氏의決議가果然이라고하면敢히一言을들이지안흘수업다

元來東興中學校로말하면 創設된지春風秋雨八個星霜에 가진苦痛을바더오면서 그래도內外兄弟의熱烈한同情밑에에 數만흔人材를養成하여왓섯고 또는養成하고잇슴도諸氏의잘아는바라고할것이다 그런데諸氏의決議는이學校를埋葬하려함에잇스니 그것은以上에도말한바中外日報支局長全盛鎬氏가 東興生徒에게 毆打를當하엿다는事實이다 나는어느程度外지의 毆打를當하엿고 또는 그毆打한生徒들로말할지라도 果然自校名譽의 中傷的記事에對한 公憤으로나왓슴인지 或은엇더한個人感情으로 나왓슴인지는알수업스나 그러타하야 間島唯一의우리敎育機關인 東興學校를永永히埋葬하려는諸氏의心理는암만하여도알수업다 萬一諸氏의主張함과가티 中國公立운運動(學校當局은絕對否認)하엿든것이 事實이라고하면 東興學校는現當局者幾個分子의 所有物이아닌以上에는 社會的으로이를糾彈할수도잇고 制裁할수도잇스며 一步를進하여는現當局者全部를 同校로부터逐出하고새로운經營方針도樹立할수가잇는것이다 생만아니라同校의敎育方針이그릇되어 生徒들의暴行이자조잇다고하면 이것外지도社會輿論이能히그들思想을善導할수잇슬것이다 그러함에도不拘하고 根本的으로이學校를 破壞埋葬하야 諸氏의滿足을 엇는다고하면 諸氏를爲하여서나 間島敎育界를爲하여서나 무엇이그리有益함이잇겟느냐말이다

우리民族의 因襲的派爭心은內地에잇서서나 外地에잇서서나 한갓病的狀態로밧게몰릴수업다 어대가든지세사람만모혀도派黨을짓고鬪爭을繼續하야 結局은自滅을促할뿐이니 엇지寒心한일이아니라할가 今般諸氏의東興校에對한態度도諸氏의 決議와가래서는 想必全間島社會의輿論을代表하엿다고볼수업스며 딸아서 一部人士의 從來同校에對한不平과 惡感을報復하기爲한一種煽動的手段으로 밧게는돌릴수업다 그러치아니하면 一個人全盛鎬氏가生徒들에게毆打를當한事實이라거나中國公立運動云云…이라는風說만가지고서야 엇지敢히同校의存在外지埋葬하려고할수야잇겟느냐 中國公立運動가튼것은말하지말고라도 同校를늘어서어떠한方面에讓渡하엿다할지라도그것이萬一朝鮮人敎育의 本意가아니라고하면 社會的으로 制裁를加하야 그리되지안토록 힘지언정 學校自體의存在外지否認할은禮當치못한絕對의罪惡이라고할것이다 오늘날우리民族의사라나갈한줄기生命은오직우리民族敎育普及에잇슴을알어야한다 나는以上더말하려하시안커니와 바라건대諸氏는부대愼重한態度를取하야 遠慮가잇기를바라며 東興校當局者로서도 반드시一考가잇서야할것을말하여둔다

城津솟발靑年會 創立七週年紀念式盛況

城津幸町솟발靑年會는創立以來七週年間會員諸氏의努力으로始終이如一하게繼續하여宏大한會館을新築하고文盲을退治하기爲하야附屬夜學校로經營하여社會의貢獻이不少하든中去廿四日은該會創立滿七週年을紀念하기爲하야晝間은同會館運動場에서蹴球大會를盛況으로開催하고夜間에는午後九時부터紀念式이잇섯는데定刻前부터潮水가티밀려드는群衆은同會館이터질듯이入場하여場內場外는立錐의餘地가업는盛況中에會長韓錫基氏의意味잇는開會辭를비롯하야李恩淳氏의沿革報告가잇난末來賓中呂東李柳鍾夏徐有珍三氏의意味深長한祝辭가잇고閉會한후이어餘興으로天眞爛漫한어린少女들의舞蹈와遊戲唱歌가잇섯고同會員들로組織한素人劇外지上演하야一般에게만흔興味와刺戟을주어喝采를입도不拘하고一般의觀衆은舞臺에集中되어熱狂의拍手소리로밤깁는줄모르다가十二時에閉會하엿다고(城津)

河南靑年會 —發起總會—

光州郡河南里에서는去廿四日午前十時高鶴柱氏司會로河南靑年會發起總會를開會하엿는데臨時議長朴準圭氏가登壇後創立大會準備委員을左와如히選擧하고其他創立準備事項을決議한後午後五時에閉會하엿다더라(光州)

◇準備委員＝朴鶴圭 朴炳琢 外十八人

黃海少年 蹴球大會 優勝은白川公普軍에 盛況裡에散會

旣報＝黃海道白川邑奮興運動團主催의第一回黃海少年蹴球大會는지난二十五日에開催되엇는데參加團體는六團體로當日午前九時에選手一同은白川公普運動場에集合하야樂隊의先頭로白川市街를一週한後團長劉偶煥氏의開會辭와來賓宋斗鎬氏의祝辭로開會되어勞頭로三星對後進의競技가잇나고午後三時에白川公普軍과延安幼虎團의決勝戰이시작되매그技術이伯仲되어觀衆으로하야금熱狂케하엿는바結局勝利는白川公普軍에게돌아갓다는데白川初有의會인만큼未曾有의盛況을呈하엿는바午後四時半에優勝旗授與式이잇슨後無事히閉會하엿다더라(白川)

鎭南浦敎員講習

鎭南浦敎育會主催로去二十六日부터三十日外지夏季敎員講習會가開催되엇다는데科目은日語及體操이고二十六日外지의出席한人員이百五十名이라더라(鎭南浦)

金剛探勝客激增 昨年보다七倍以上

金剛山探勝客은年年히增加하는現狀인데더욱本年은鐵原을起點으로한金剛山電氣鐵道가炭甘里外지延長、어京元線鐵原驛에서當日에長安寺外지到着할수잇고元山長箭間의日發汽船이航行하며元山長箭間每日自働車便이잇서探勝客에게非常히便利하게되엇슴으로本年의山開當日即五月二十五日로七月十日外지의探勝客은實로三千四百四十六名에達하야昨年의四百十六名에比較하면七倍以上의激增이며딸아서長安寺郵便所의通信機關利用도增加하야電報는昨年보다十一倒電話十倒、郵便十二倒、爲替十四倒이增加하엿다더라(元山)

全州配達組委員會

全北全州配達人組合執行委員會를去二十五日午後에同會館에서金均氏司會로開한後不日間全北全州郡勞働聯盟에代表出席員選定及決議事項은左와如하다더라(全州)

◇代表出席員＝金均 金文玉 朴亮 來朱洙斌 李奭完

◇決議案

一、全州郡勞働聯盟에關한件
一、月例會는每月第一日曜日로決定할것

新幹會漆谷支會 幹事會에서部署決定

新幹會漆谷支會에서는去二十五日午後三時부터若木同樂堂內에서第一回幹事會를開催하고裵忠植氏司會로左記와如히部署를決定과決議가잇슨후同五時에閉會하엿다더라(漆谷)

▲庶務部總務幹事裵忠植▲財政部總務幹事金顯漢▲政治文化部總務幹事申相泰▲宣傳部總務幹事曺重奎

東京學生巡講團 光州에서講演中禁止

東京學友會主催의夏期巡講隊는去二十五日에來光하야同日午後九時부터光州興學館內에서高等係主任下以數十餘名의臨席警官의嚴重한警戒裡에韓吉春氏司會로開催되엇는데定刻前부터講堂內外에는立錐의餘地가업시數百聽衆이集合하야歡迎의拍手聲裡에金三峰君의『家庭制度의社會的根據』라는演題로熱辯을吐한後韓林君의『理論과實踐의統一』이라는演題로警官의注意下에長時間熱辯을吐하고即時朴亮根君의『人類의過去와現狀』이라는演題로熱辯을吐하는中警官의注意及中止로解散命令一聲에盛況을일우든場內는參參이解散을當하고말엇다더라(光州)

西鮮蹴球會 兼二浦서開催 八月十二、三兩日間

本報兼二浦支局一週年紀念과兼二浦學友會의主催로來八月十二三兩日間을兼二浦에서西鮮蹴球大會가열리게되엇는데西鮮各地에서多數히參加할것을豫期하고大會準備委員一同은特히參加團體의便宜를도읍기爲하야旅館의準備와모든方面으로奔走한다더라(兼二浦)

松島靑年會臨總

松都靑年會에서는去二十四日午後八時半부터會館內에서臨時總會를召集하고左記各項을決議하얏다더라(開城)

◇決議事項

一、郡聯盟大會에左記五氏를派遣할것
河奎抗 孔榮祥 孫洪燮 韓相鮫 馬泰榮
一、懇親會開催의件
一、規則改正

東興中學校 聲討講演會 領事警察禁止

旣報한바와如히間島東興校에對한聲討講演會를豫定과가티지난二十日間島公會堂에서開催키로하고主催側東興校埋葬策講究會에서는此를總領事館警察署에許可願을提出하엿든바警察當局에서는事端이擴大하여질念慮가잇다는條件으로同會를禁止하엿다더라(間島)

開城少年軍 斥候隊 衛生宣傳標語

少年斥候團朝鮮總聯盟第十五隊開城第一隊高麗少年斥候隊와第二十六隊開城第二隊松都少年斥候隊에서는聯合으로지난二十六日을期하야夏期衛生宣傳(셰티)를開城市內全部에散布하야一般의夏節衛生을注意식히엇다는데宣傳標語는左와如하다더라(開城)

◇宣傳標語

一、수채를정결케하시오 파리와모긔가적어집니다
一、변소를정결케하시오 더러운내암새가업서집니다
一、수커와그릇을정한물로씻커덥으시오입병이적어집니다
一、이불과자리를자조해비레쪼이시오폐병을면할터입니다
一、과음과식을주의하시오위장병에걸니지안흘터입니다
一、냉수를먹지마시고할수잇는대로끄린물을잡수시오
一、일즉자고일즉이일어나시오구미를일케안홀실터입니다
一、어린아이를벗人기어내노치마시오설사병에걸리기쉽사외다
一、모긔의물리지마시오학질에붓들리기쉽사외다
一、익지안흔과실을먹지마시오토사곽란에걸리기쉽사외다
一、파리가안진음식을먹지마시오념병을엇기쉽사외다
一、한데서잠을자지마시오배병나기쉽사외다
一、투습한데거처하지마시오각긔와투마치스병들기쉽사외다
一、불결한물을마시지마시오위병나고돈업서집니다

西鮮……庭球大會 批峴에서開催 八月十一、十二兩日間

平北批峴靑年會에서는來八月十一、十二兩日間 批峴公立普通學校코-트에서東亞、朝鮮兩支局後援下에第四回西鮮庭球大會를開催할터인바希望團體는左記規定에依하야參加申請함이조켓다더라(批峴)

◇規定

一、競技期日 八月十一、十二兩日間(雨天順延)
一、競技場所 批峴公普코-트
一、參加組 三組
一、參加金 靑年團三圓 小學團一圓
一、申請期日 八月十一日外지
一、申請場所 朝鮮日報支局
一、抽籤期日 八月十一日午前十一時
一、抽籤場所 大會場
一、賞品 優勝旗와旅費를負擔
一、審判 改正軟球規則에依함

全尙州庭球大會 最後決勝은李秉雨組에

慶北尙州體育會主催와新一書店及本報尙州支局後援下에全朝鮮庭球大會에出戰準備練習大第五回全尙州庭球大會를開催한다함은旣報하엿거니와豫定과如히去二十四日當地郡廳코-트에서開催하엿는데最後優勝은李秉雨、輿東永兩君에게로歸케되어數百觀衆의歡呼聲裡同六時에無事히散會하엿다고(尙州)

延專巡講隊着景 忠南江景

長黃金町에잇는江景法靑年會의主催로 延專巡講團을招請하야 去二十二日午後九時부터同會禮拜堂에서講演會를開하고『生』이라는題下에崔昌鉉君이熱辯의잇섯는데警官의注意裡에無事下壇을하고朴炳夏君의淸雅한獨唱이잇슨後蔡祐炳君의當面한問題라는長廣舌이잇서滿場聽衆에게刺戟과感興을일으키고下壇하니때는正히午後十一時頃으로盛況裡에閉會하엿다고(江景)

開城學生親睦會 在京學

在京學生으로組織된開城學生親睦會에서는去二十五日午後四時市內中央會館三層樓上에서定期總會를開催하엿는바出席會員이二十餘名으로改選된委員과決議事項은다음과갓다고(開城)

◇委員＝金鶴炯 朴永培 金奎興 金光鉉 李楨烈

◇決議＝一年間事業停止

延專巡講隊消息 京城延

禧專門學校基督靑年會巡講隊는去二十三日論山에到着하야豫定대로同日午後八時半부터本報東亞兩支分局과論山無產靑年同盟의後援으로論山劇場內에開催한바定刻前부터殺到하는聽衆은無慮六百에達한初有의盛況裡에趙根英氏의意味深長한開會辭를비롯하야隊員中崔昌鉉君의簡單한趣旨說明이잇슨後演士朴炳夏君이『生』이란問題로長時間雄辯을吐하야一般聽衆으로하여금만흔感興을주고同午後十一時에無事閉會하엿다고(論山)

延專巡講隊歡迎 論山各

團體主催인延專生巡講隊歡迎會는廿三日永化女學校大講堂에서無產代表李圭弘氏의開會辭로開催하고朴弼革氏祝辭兼感想談이잇슨後隊員中崔昌鉉氏의中國革命運動에對한것과方向轉換을長時間말하엿는바當日에는簡單한茶菓會外지잇섯다고(論山)

趙元祚氏의特志 平南孟

山北倉里趙元祚氏는貧者와共公事業에만흔힘을써오든바今番五六日이나繼續하는洪水로因하야極貧勞働者들은困境에잇슴을보고本社北倉支局을거처現金十二圓을極貧者에게分配하여달라함으로支局에서는極貧者에게一一히分配하여주엇다고(北倉)

地方集會

●利原商務會定總＝咸南利原邑에잇는利原商務會에서는去二十五日에第三十四回定期總會를全景和氏의司會下에諸般事項을決議하고閉會하엿다고(利原)

●礪山公普同窓會＝益山郡礪山公立普通學校第二十五回同窓會를本校講堂에서來八月一日에開하리라는데一般同窓會員은多數參席을바란다고(全州)

●龍道公普同窓會＝黃海道延白郡龍道公立普通學校第九回同窓會總會는來月六日同校內에서開催하기로決定하엿스며그날은滋味스러운餘興도잇스리라는바多數參席하기를바란다고(天聾)

●水原學生親睦會定總＝水原學生親睦會에서는去二十三日三一學校講堂에서定期總會를開催하엿는바今年은同會創立한지十週年이됨으로同紀念事業에關하야充分討議한結果來八月十日頃을期하야晝間은陸上競技大會와夜間은演劇音樂大會를在水原東阪體及東亞本報兩支局後援을바다開催하기로決定하고閉會하엿다고(水原)

地方人事

▲金永福氏(農人社員)此際하고咸北平北에出張

地方漫筆 農業補習校設立

安岳支局 一記者

安岳中學期成會가組織된지는벌서六七個年이란긴歲月을經過하야 一般有志의熱誠한熱誠이나마焦點이되어왓섯다 그러하나힘업는우리의일이오 또數年來經濟打擊으로한가지의實行도업서왓스나 그동안만흔波瀾과苦한曲折을거듭하면서무주히쉬지안코努力한結果 이제鄕村諸여러분의積極的援助를어더아쉬充分치는못한 農業補習學校나마設立이되엇다 이얼마나多幸한일이며欣喜할일이냐 子女를둔여러분?아니朝鮮人된여러분이여!다가티깃버하고 다가티援助하야將來有望한學校가되기를비는바이다

記者는 이러한말을種種들엇다 『우리朝鮮사람生活로써 먹을것입을것이업는것들이敎育이다무엇이냐』 고果然그러키는그러타 우리는모든것에남다른 苦痛을밧는處地에잇서서 或은할수업시男負女戴하고흐르는눈물을먹음고 故國山川을떠나 西間島나北間島를차저서 或은긔나가면죽음인배를채와 自由의生活을종하여볼가하는一時希望으로國境을건너가는同胞가 每年幾千幾萬名이나되는가? 이러한境然한데에서 무엇에뜻이잇스랴마는다른일은 다그러타할지라도現代에敎育外지 모른다할수업슴은事實이아닌가? 우리滅亡은曚昧한罪이며 曚昧하게된原因은敎育이업는때문이다 그럼으로敎育으로써 子弟를敎授하고敎育으로써 朝鮮을살려야할것이아닌가

安岳은地理上으로도 黃海道福要에잇서서 將來設港의問題로잇는 諸島가不過六十餘里에境하엿스며 計劃中에잇는信川安岳間輕便鐵道가通하게될形便이요西으로長淵殷栗松禾長淵南으로載寧信川海州가周圍에잇스며敎育狀況으로보와도今年度安岳에만公私立間二百餘名의卒業生을냇다하니 六七個所郡을두고말할진대每年平均一千四百名은될것이아닌가? 萬一安岳에中學校가벌서잇섯다면 近一千五百名이란學生이他方으로갈理가업스며또얼마나더만혓슬는지도알수업는일이다

아모리敎育에必要를切實히깨닷고子弟를남달리가르치고십흔생각이불쑷가티일어난다할지라도鄕村에뭇처어잇는우리로서는到底히미치지못할일이다 제地方에相當한機關이잇기만하면三旬九食을하드래도될수잇는程度外지는繼續할것이나 만일그러치못하야幾十石을農作하야제법安穩한生活을하여가는者이라도그子弟를或京城이나平壤開城地方으로보내어每月三四十圓어란學費를携出하기는그處地로써不可能이아닌가그리하야처음學校에入學시킬때에多大한希望도잇섯고相當한抱負도잇섯든것이結局은모다水泡로돌아가고사람스러운子弟를반병신되게함뿐이다

安岳에이만치中等程度의敎育機關이서게된것도無產子弟를爲하는것보다有產子弟에게도莫大한利益이잇다할수잇다 첫재로一個年學費로二三個年學費로쓸수잇는것과둘재로어린子弟를눈압헤두고指導監督할수잇는것이다 여러분이여覺醒하고奮起하라 우리社會를보아서朦昧한子弟를爲하야設立된補習學校나마더욱援助하여援助함으로써우리의生活을建設하고그러함으로써우리文化를樹立하기로하야腐敗된우리半島를回復하게하고남과가리平和의生活을하도록盡力奮鬪하기를삼가바라는바이다

印刷職工組合奮起 勞總도對策講究
팔개조건을고주측에요구 (大同印刷工罷業續報)

석간긔보═대동인쇄주식회사(大東印刷株式會社)직공일동이맹파한사실은아즉해결되지못하얏다는데 이에대하야 경성인쇄직공조합에서도 분긔하는 동시에 로동총동맹(勞働總同盟)에서도대책을강구중이라는데직공측의요구조건은일에와갓다더라

一、無貸金의時間勞働을拒絶할일
二、强制貯金을撤廢할일
三、前者罷業時에承認되엇든要求條件을實行할일
四、職工에게掃除를撤廢할일
五、解任時에는年限手當三個月分給料를支拂할일
六、職工對會社間一切約束을嚴守할일
七、職工取締規則中每年二次昇給의件을實行할일
八、昇給하엿다가돌오減下된賃金을復舊할일

撤水車와 電車衝突

이십륙일 오후여섯시 이십분에 시내종로(鍾路)삼뎡목백오십번디압에서 부렁의물뿌리는 자동차 백팔십륙호와 뎐차가충돌하얏는데 자동차는 약신오원의손해를바덧슬뿐이고 다행히 사람에게는피해가업섯다더라

問題의安邊金鑛
비리행동만자행하는광주 검사국에방금형사소송 ◇飢餓에우는數百鑛夫

년래로 불평과 원망의소리가놉하서 세상사람의주목을 쯔을고잇는 함남안변군위익면 죽근리(咸南安邊郡衛益面竹根里)장훈(張薰)의 경영하는 학소동금광(鶴巢洞金鑛)은 개광적부터 수백명로동자들의 쉬일새업는 불평가운데 그내용의암흑면(暗黑面)을 뎐번이나돌어서이미본보에 트차보도하바어니와 금년일월부터는 수백명로동자의 명맥(命脈)인것도불구하고광주장훈의 무리한사리(私利)를위한 채굴정지(採掘停止)로인하야세상사람의 주목속에서 문제는층생첩출하는바 이제그자세한 내용을듯건네 작년봄에 광부(鑛夫)들로부터 채광착수금(着手金)이백여원을 바더먹고도 광주의무리한위약(違約)으로한참동안 문제가 비등하엿든후에 사회여론에떨아서할수업시그문제가겨우해결이되엿후에는 광주 장훈이는동리 계주학(桂柱學)으로부터 수천원의자본금을 출자케하고 그밧게 더대네사람과합께공동경영의 책임을지고 경영에착수하엿든바 갑작이 자긔의예상이상으로 광맥의 풍부함을보게된 광주장훈은 자긔의사욕을위하야 무리하게도 지난일월상순에 채광을정지시키어 공동경영자들은 상호계약(相互契約)의 명문이잇슴도불구하고이런무리한행동을 감행함에대하야 분긔가충텬한는동시에 수백명 광부들은 적설(積雪)속에 의지가업시 오도가도못하고 긔한을못이기어 거의사경에 이른것을 전긔계주학이가 의복과 음식과 려비약간식을 전부에 배부하야 경각의문제는 겨우완화되게 되엿는바 그후에 공동경영자의만흔충고와 일반광부들의 갈망을 전연히 무시하고 자긔독리(獨利)의긔회를기다리고 아직까지 개광을하지아니햇다는바전긔계주학은 그러면 나의채무나보상해달라고호의로 요구하엿스나 그는채무란 전연히업다고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고소를케긔하엿든바 검사국에서 취됴한결과모든서류와 명문이잇슴을보고 곳무고죄(誣告罪)로전긔장훈을방금엄중한 수속을하는중이라는데 이광산문제가 그디방에서는 실로더할수업는 큰문제로 권광민의명맥문제가되어잇는것임에도불구하고 이러케 비리의수단으로 불평의 와권(渦卷)을만드는 광주장훈을 비난하야마지안는다하며 그의미테는 친족부하(親族部下)간공동음모자가잇는

非難만흔 永登浦郵便所

근일영등포(永登浦)우편소(郵便所)에서는김포(金浦)방면으로가는우편물을신여일식이나지체하고취송의책임을리행치아니함으로 일반은 그우편소의무책임한태도를 비난하는 동시에그로인하야김포주민 들의 손해가막대하다는바 그의리유를 알아본즉 원래김포방면으로 가는우편물은전부 영등포 우편소를거치게된관계로 종래 우편물을자동차(自動車)로매일체송하든바지난번 장마로인하야 자동차가불통중임으로 지난십삼일 부터우편물을 림시로 인부로체송하는중인데 영등포우편소 에서는 우편물의 다소는 불계하고비용관계로인부를 적게사용하야 지난십삼일이후 소포(小包)를 산가티 싸아노코도 자동차가개통되어야 보낸다는 무책임한구실로십여일이 지난 이십오일까지 적체된 우편물을보내지 아니함으로일반의손해가 막대한 동시에영등포우편소에대한비난이날로놉하간다 더라

路上活悲劇

지난이십오일오후다섯시경에경남선온양온천역전(京南線溫陽溫泉驛前)에서는일상의활극이 버러젓는데 이제 그자세한내용을들어보면 주소미상인 단발한김청녀(金姓女)(二六)와온천리(溫泉里)에잇는권우삼(田祐三)과 격투를 하여 보기에도끔직한혈흔(血痕)이잇섯는데원인은전긔권우삼이가 김청녀에게 살자하매 거절함으로 이것이도화선이되어 그와가튼 참극이잇섯다하며 이제그단발한 권말을들으면 김성녀는론산(論山) 태생으로 십오세에에 출가하야단란한가정의생활을하다가뜻하지아니한청상(靑孀)이되어이래친가에가잇든중 경긔도광주군동부면 리규정(京畿廣州郡東部面李圭晶)이라는자가료산경찰관주재소에 순사로잇슬때에 정을통하야 이래부부가되어 칠팔개성상을하로가티 지내며 달콤한날을보내오든중어느때는곤궁에빠저 걸식한일도 한두번이아니엇스나 그연분조차 길지못하야작년팔월경에 한줌기 눈물로리규정과 인연을끈코 동서로분리하고 생각다못하야 단발이나하고 승이되어 산간벽디에 수석으로 벗을삼어 여생(餘生)이나보내다가 영원(永遠)한 나라에가서 사랑하든랑군을 맛나엇원한 향락을 보라는 공상으로금년사월이십일에오산역전(烏山驛前)에서 조흔머리를 여디업시깍근후수원룡주사(水原龍珠寺)를비롯하야 각암자로돌아단이든 천안광덕사(天安廣德寺)로가는길에 온양온천에 들어잇던바 악마가튼남성의 잔악한 발길에짓밟히어 그와가튼 참극이잇섯다 더라

美名의看板으로 詐欺하고逃走

본적을충남홍성군(忠南洪城郡)에둔 송각(宋珏)(三七)과 리병철(李炳喆)(三○)이란자는 경성부남대문통二丁目에본사를두엇다는 소위조선흥산합자회사(朝鮮興產合資會社)지뎜이라는 간판을지고 나간오월부터 안주군내(安州郡內)에걸고외교원모집과 양봉강습생을 모집한다고 광고를부친후 양봉강습생에게는 수업료이십원식을밧고 도망하엿다 더라

旱天에汲水嚴禁 三百住民을草芥視
면소사의처로면장의애첩이된후 안하무인격으로음료도못깃게

김천군위량면 금라동(金泉郡位良面金羅洞)은 삼백여주민의집단디로써 음료수(飮料水)의 설비가불완전하야항상곤난을바다 오던중 근자에와서는 한련이심하야그곳위량면 사무소와 경찰관주재소 우물을 길어먹던중돌연히 동면면장 서상희(徐相禧)씨의애첩인 리표이(李表伊)라는녀자는 면장의 애첩임을자세하야 삼백여주민을 초개시하고 그동리홍계선(洪桂先)(二五)이란 어린녀자를 비롯하야 가진패악을 하며 괴탄업시 또차버리고더욱가중하고 얄미운것은『우리대면장나리가 먹는물을동민은 먹을수가업다고』 무쌍한폭언을하야이에분개한 주민은 철거한데 책을강구하라하던중이것을알게된그곳경찰관주재소에서는면장에게일장 설유를한후 이후를주의하게하엿다는데 전긔 면장의 리표이는 본래 그면소사 김국서(金國瑞)의처로써면장의 직권으로써 작첩된것이라 더라 (김천)

浦項署員의橫暴
신문긔자모욕과직권람용 慶東記者聯盟奮起

경북포항(浦項)경찰서 사법계에근무하는 리(李)형사가 조선문 신문긔자에게 형언할수 업는모욕한사건과 기타요리업자에게 뢰물을바다먹고 여러가지 직권람용한 사건에 대하야 경동 긔자동맹(慶東記者同盟)에서는 크게 분긔하야 지난십일일에 긴급 책임위원(責任委員)회를개최하고그대책에대하야 장시간토의한결과 위선사실을됴사하야 사회에 발표하기로한후 즉시 리재우(李載雨)박석규(朴錫圭)량씨를 각방면에 파견하야 엄밀히 됴사한결과리형사의 여러가지죄악은 도저히묵과할수 업슴으로 책임자인서장에게까지 질문한후 그의죄악을 세상에발표하는동시에 압흐로더욱 대책을 강구중이라는데 경동긔자동맹리, 박량씨는사실전후를 일일히 됴사한후 책임자인포항경찰서(浦項警察署)충덕(沖德)서장을 방문하고 리형사와 동업관사건을 일일히말한후 귀서형사로서 이러한비행이잇슨즉 서장은깁히생각하기를바란다 한즉 서장은 대경실색하면서 자긔는 그러한사건이 잇섯는지전연 모르고 잇섯는바조사한후처단하겟다 고하얏다는데경동긔자동맹에서는리형사 사건에 대하야도저히 묵과할수 업슴으로 감독자인 서장이나상급관령의태도를 보와다시 대책을당하려이라하며 엄중한 처벌이업스면 뎍극뎍 방법을취하리라더라(포항)

宿案中의三聯盟會館은 不遠間實現될터
세위원의렬렬한활동으로 일반인사는감복동정한다

전남장성군(全南長城郡)에잇는 청년(靑年)로동(勞働)농민(農民)삼련맹합동회관긔성회(三聯盟合同會館期成會)는 그동안만흔활동을한결과 일천칠백여원을들이어 회관을준비하야 반액은 이미지불하엿스나 여러가지사정으로인하야일시그동정금모집이 매우곤난하든중 지난이십일에 동회에서 라승규(羅承奎) 김인수(金寅洙)변동악(邊東岳) 삼씨가 집행위원으로 선뎡되어 불일간 그모집에 착수한다는바 일반동정하는이도만흘모양이며 먼저 동정하니중에 현금을아직내히지안흔이도 동위원들의활동에감복하야 준비하고 기다리는모양이라는데 일반은 동삼씨의활동에대하야 만흔긔대와 측망을가지고 동삼련맹의 장래가 매우유망함을 확신한다 더라

酒稅係員藉勢하고 人妻를威脅凌辱
본부는강간죄로경찰에고소 犯人은和姦이라固執

경북영일군 송라면중산리(慶北迎日郡松羅面中山里)리태희(李泰熙)의처 구남순(具南順)은주식영업(酒食營業)을하든바지난륙월이십륙일 그의남편이 출타하고 어린계집아이만다리고 잇슬케동일오후 아홉시쯤되어 송라면서긔박해수(松羅面書記朴海守)백상긔(白相基)등외 두어사람들이 들어와 술을청함으로 전긔주인은 술이업다 고한즉 전긔사람들이달려들어구녀(具女)의팔을당기고 등을밀며 다른곳으로 쓸고가라는것을 거절하얏더니 전긔백모(白模)외 윤모(尹某)배모(裴某)삼인이다시와서 업다는술을강청하여 먹고마즈막 작별을하고 가더니 전긔배모가 불을쓰고 버슨몸으로자는방에 들어와서 수욕을채우려고하엿는데 구녀(具女)는 죽을힘을다하야 욕을피코저 하니뼈의말이 나는주조취체계(酒造取締係)에 잇는줄네가아는바이아니나 만약응치안는경우에는 주조면허(免許)를취소시킬터이오 다른여러가지에도 의롭지못한일이 만히잇스리라고 위협을하엿스나 종래듯지안흐매 그는다시구녀(具女)의 배우에 걸타고안슴으로 구녀는큰소리를질으니백(白)은 수건으로 구녀의 입을막는등 여러가지 만행에부대기어 인사불성이되엇는데 마츰건너동리에서 오는 술군들의 소리가 들리게되자전긔배모(白某)는달어나버렷다는데 이사실을들어 그의남편 리모(李某)는 강간죄(强姦罪)로고소(告訴)를 뎨긔하엿다는바 빼은 사실을 연부인하다가 각종 들어나는 증거가 충분함으로 그는다시화간(和姦)을 주장한다는데 서류는 지난십칠일경포항본서(浦項本署)로 넘어왓다 더라(포항)

金浦에도虫災

경긔도김포(金浦)디방에는금년봄이후로 다소의한재、수재가잇섯스나 식부상황이 비교적양호하야 아직현상으로는 풍작을예상하든바근일에이르러관내각처에부진자(浮塵子)가발생하야차차만연되는중임으로 일반은 매우념려중이라더라(김포)

熙川署員出動
덕천무장단의출현으로

지난이십삼일에 평남덕천군풍덕면(平南德川郡豐德面)에○○단이 출현하엿다는급보를 접한 희천경찰서(熙川警察署)에서는이십명경관을응원차로그부근에파견하엿다 더라(희천)

金剛探勝延期

본보려주지국(麗州)에서금강산탐승단을 조직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간에만반의 준비가다되어 이십륙일에 출발하려하얏스나 북선디방에 비가만히 온다는 말이잇서부득이 팔월십사일로 연긔하엿는데 일반참가하신이는 이대로 알어두시고 아직 참가아니하신분은 속속히참가하기를 바라는바이다 (려주)

物產會社創立과 慈善會今後可慮
자선회에수입되는수수료를 물산회사가점령하려고운동 仁川六萬府民의注目處

인천조선인자선회(仁川朝鮮人慈善會)는지금으로부터 약륙칠년전 고뎡치국(故丁致國)씨가자선회장으로잇슬시대에상인천역(上仁川驛)전일부를 매립(埋立)한후 그곳에다가 여름의진과(眞瓜)와가을의채소(菜蔬)중개수수료를바다 가지고우금륙칠년동안을 자선회경비에 보충하여왓스며 딸아서 그시장의수입으로인하야 인천륙만부민의 삼분의이이상을 점령한 조선인무산자는 적지안케 자선회의구제를바닷섯는데 작년중에 인천부의 경영으로 전긔상인천역전을 전부매립한후 공설시장(公設市場)을 건설하게되자인천물산주식회사(仁川物產株式會社)가 창립되어 그곳에사무소를두고물품위탁판매(物品委託販賣)라는 영업과목에서 전긔자선회의 수입되는 수수료를점령하려고 방금암중에서 운동중이라는데 과연그곳으로부터 자선회에수입되는 금액으로보면 진과시대의수입은 약이백원이오김장시대의 수입은약팔백원이라는바 동자선회로서는 그곳을두고 산내중의 구제하는보고(寶庫)로인정하고 물산회사가인가되기전에 횡뎐(橫田)인천부윤에게 교섭하엿섯는데 동부윤도 십분양해하고 진과의 위탁매매만을 관계하지안토록하겟다고 언명까지하엿스나회사측으로서는 무산농호의 구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암중에서 각촌에사원을파견하야자긔의회사로와서진과를매매하도록운동중이라는데 이에대하야 일반부민은 물산회사의태도를주목중이라더라 (인천)

少女溺死頻頻
빨래하려갓다가

지난이십오일오후두시경에달성군해안면방림동(達城郡解顏面芳林洞)류인선(柳仁善)의둘재딸옥출(玉出)(三)은전긔시일에빨내하려내가에나아갓다가해가저도들어오지 아니함으로그의부모는 사면으로 차진결과전긔내(川)가에『방망이』가떠잇슴을 발견하고즉시어린아이의 시톄(屍體)를차저매장하고말엇다더라(대구)

인사안햇다고 함부로구타해

평남맹산군 가창경관주재소에근무하는 순사김제룡(平南孟山郡假倉警察官駐在所勤務巡査金濟龍)은 몃칠전봉인면정광리김인긔(封仁面正光里金仁祺)씨를무리란타하야 중상을 내어피해자는 지난이십륙일 평양디방법원덕천지텽에 고소를 뎨긔코저가깃다는데 이제 자세한사실을 탐문한바에 의하면 지난이십사일전긔 김제룡과다른 순사한명과 어데를갓다오다가 전긔김씨를 맛나 인사안하엿다는 구실로 무지 따린것이라는데 김제룡은 수일전에 쌀두말과조한말을 김인긔씨에게 외상주하엿다가거절을 당한일이 잇서아마그 숙원(宿怨)의보복이나아닌가한다는바 이자는 본래성질이강포하다더라(북창)

近古初有의 寧邊市內浸水
손해가실로막대하다고

금번서북디방의홍수는실로그손해가 곳곳에적지안흔바 평북녕변(平北寧邊)디방에는근래에업는시가(市街)에까지 전부침수되어 그피해액이 삼천여원에달한다하며 농작물의피해는 더말할여디가업시막대하다더라 (안주)

寧邊郵便不通

녕변디방의 침수로 녕변우편국(寧邊郵便局)관내에는약일주일동안을 우편이불통되엇다 더라 (안주)

自働車不通

맹중리(孟中里)자동차(自働車)는각처 이전부 약십일동안을 불통되엇는데 아직까지 교량류실과 도로파괴로불편이만타더라(안주)

◇洋傘窃盜═개성군송도면지뎡(開城郡松島面池町)에사는 홍학인(洪鶴仁)(三七)은일뎡한직업이업시물아다니다가지난대정삼년에절도범(竊盜犯)으로징역팔개월에 처한것을 필두로이래 십여년동안에 전후사오차이나 감옥에서 복역한자이데 지난십륙일에개성군송도면경뎡(開城郡松島面京町) 잡화상(雜貨商)리수현(李壽鉉)의집에서 양산(洋傘)한개를절취하고동이십일오후두시경에대화뎡(大和町)질옥리중옥(質屋李重玉)의집에침입하야 역시양산한개를 절취하야이것을팔아 아편주사 비용으로소비한것이개성서원(開城署員)의람지한바된것이라고

富豪子弟誘引 浮浪者團被捉
개성경찰서에

황해도연백군은천면남리(黃海道延白郡銀川面南里)방치현(方致鉉)(三○)동은천리(銀川里)장긔주(張基柱)(三五)개성군송도면원뎡(開城郡松都面元町)장창렬(張昌烈)(三○)은지난이십칠일 오후두시경 개성경찰서(開城警察署)서원에게톄포되어 취됴를밧는중이라는데 그자세한내용을들으면 전긔세명중 장창렬 방치현두명은 세상에유명한부랑자로서 남의집 호화자뎨를 유인하야가지고 직업으로삼는중 지난오월부터 개성부내○려관(開城大○旅館)에투숙하면서 그곳을본영(大本營)으로 활동을게시하야 개성경뎡(開城京町)사는리○백(李○伯)(三)이란자를유인하야 료정긔생(料亭妓生)으로돌아다니며술먹음비시키고 며옥이 토디를 헐가로매매케하야 그대금을횡령한것이라더라

洪水後에 染病이大流行
안주디방이우심

평남안주(平南安州)디방에는이번홍수가 지나간후로 여러가지병이 류행하는데 화질과독감이 예월만히창궐하야 환자가격에안타하며 평남도 위생과장산내(山內)씨는 편내침수된 디방을순시하엿다는데 장질부사 후은괴질가튼병이 류행될 우려가 잇다는바 일반은 위생에 더욱주의함이가하리라고한다 더라 (안주)

『檢事의威脅에 겁이나取下햇소
사실은틀림업는사실이요』 面長 李赫相 談

석간긔보═춘천군봉산면장의신분으로서 면민을멸정하게공무방해니 뭐니 하야고소를한리혁상(李赫相)은 왕방한긔자에게대하야 말하되 『내가면장이 되기는 금년삼월삼일인데 면소이뎐 문뎨로인하야 봉산면민이 반대할것을 생각하고 일후에 폭행이잇슬것을 미리짐작하얏습니다 당국에서도 말하기를 만일에그러한일이 잇다하면 법으로처치한다고 합되다 그래서나는 안심하엿습니다 동월 십칠일에 오개동리인민 수백여명이 작당하야 면사무소를 포위하고 또차단념으로 엇지할수업서쏘지나고보니 분하기도 할하고 수모자조상홍(曹相洪)외오명을걸어서 고소를한것입니다 그런데 검사는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한갓폭행한인민만을 위하야 나를무고하엿다고질책을 하는동시에 심지어 당배가을 들어위협까지 하며 립회하엿든 경관을명하야 곳검속하겟다고 협으로부터 독이 고소를 취하하엿습니다』 하더라

『棍棒隊警護裡에 無事히赴任햇스나
우리는도저히용인할수업소』 被告訴民代表 曹相洪氏談

이에대하야 피고소면민들의 대표자라고할만한 조상홍(曹相洪)씨는말하되 『리면장으로 말하면 본시면소를봉산으로 이뎐하는것을 반대하든 사람인데 면소가이뎐된오는날에 그사람이 이면면민에 엇더한영향이 미츨는지 알수업습니다 또면동리를 뎨한외에는 전부가 리면장을 반대하는터이니 자긔로서도 데면이잇다면면장을 내어노치안흐면 안될것임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면행정의책임자의 신분을가지고 부임벽두부터 멸정한거짓사실을들어가지고면민을 경찰에 고소한다는것은 사람의얼골과 마음을 가지고는 도뎌히 할수업는일입니다 또그뿐아니라 그는 부임할때에 자긔의 응원되는 몃몃사람을 시켜서 수백명의동민을 선동하야가지고 모조리곤봉을 준비케하야 자긔신변을 호위하는가운데서 부임을 하얏스니 그것이무슨 살풍경입니까 자긔는벼를 수백석하는터 이니와 모든방면의 세력의존중취고 바야무인의행동을 하겟지 마는 우리는도뎌히 용인할수 가업습니다』

飮食店主人이 旅客을亂打致死
원인은사소한말다툼 ◇犯人은即時逮捕

지난이십구일밤에 함남리원군 남면염분리(咸南利原郡南面鹽盆里)고개에서 털도인부한명이술집에들어갓든바 그술집 주인은 그를구타치사케 하엿는데 이제그내용을 알아보건대 가해자는 본적을 강원도양구군 동면림당리(本籍江原道楊口郡東面林堂里)에둔 김순태(金順泰)(三一)라는자로서 수월전부터 염분고개에서 주옥(酒屋)영업을하야 평시에도 불량한일이만튼바 주소도미상한 박재원(朴在元)이가 갑산(甲山) 방면으로나오지 불과수일이 못되어 그를구타하야 피가흘러 말이못되게되어 동일 오후열시십분에 죽엇는데 이급보를접한 차호주재소소장 증뎐경부보와 백명주(遮湖駐在所長增田警部補及白明周)씨가 급행하야 됴사한결과 전후사실을탐문하엿스며 범인은즉석에서 톄포하여 주재소로송치 하엿다는데 리유는사소한 말다툼으로 그와가티 되엇다 더라

五代獨女가 劇場에서窒息
극장구경을다처서

지난이십오일에군산개복동(群山開福洞) 활동사진상설관에교육극(敎育劇)『롱의玉』의영사가 잇섯슴에 군산보통학교 학생을 물교원이 인솔하고 구경을갓섯든바 일학년녀학생 김정숙(金貞淑)(八)은비좁은데서부대끼든관계로질식까지한바그는그후부터경과가 조치못하야 드되어 병석에눕게되엇는데 그는오대독녀로서그부모는우려중에잇다고

원수의돈! 안해쌔앗기고鐵窓
돈버리하러일본으로가든길에 안해쌔앗기고몸이철창에신음 黃金과人情慘活劇

달성군구지면수리동(達城郡求智面修理洞)백학규의장남(白鶴奎長男)봉개(奉介)(三○)는 동동에잇는 배도홍(白道洪)이가 작년에 일본에 돈버리하려간틈을 타서 그의안해 정남옥(鄭南玉)(二○)의 얼굴이 아름다움을보고 감언리설(甘言利說)로써 꾀여가지고 놀아서온후 지나는동안 항상먹어든 야심을 채우게되자 어느듯 그들은 정이깁히들어사랑을 속살거리고 지나게되엇는데 녀자의배속에는 죄악의씨를 배어 엄마전에 옥동자(玉童子)를 물나하 길르든바 그의남편이고향으로 돌아와서본즉 안해는 가하나잇슴으로 전후사실을 들은후에 그는즉시 학규를차자보고『네가남의안해를 쌔앗서서』 안해조차 일베되엇스니 장가드도록 돈일백이십원을달라고 협박함으로 그는이를 승락하엿든바 또다시 그는엄마전에 차저와서돈을줄히아니준다고야단을 치며함부로따려 중상까지 시켯슴으로 이에분개한 학규는진단서(診斷書)를첨부하야대구서에 고발한결과 전긔배도홍은 원수의돈이업슴으로 일본까지 갓다가 안해를일코 결국유치장까지 구경하게된바동서에서는사실을취됴하는중이라더라 (대구)

家庭不和로 少婦飮毒
여러가지비관

시내 종로삼뎡목 륙십칠번디(鍾路三丁目)에사는리선옥(李善玉)(二三)이라는녀자는 이십칠일 오전여섯시경에 그의집변소안에서다량의양잿물(苛性曹達)을 마시고자살을 도모하고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하고즉시 응급수당을하야 간신히생명은 구조되엇다는데 그녀자는 시내련지동(蓮池洞)일백삼십삼번디구연순(具然淳)의어붓자식으로 가정뎍(家庭的)으로 불행한 환경에서 성장하야작년십이월경에 그의양부인 권긔구씨의 강권으로 부산부보수뎡(釜山府寶水町)영명학교훈도(英明學校訓導)김칠성(金七星)(三○)과결혼하얏스나 미구에리혼이 되엇슴으로 금년일월부터 그의친뎡에 돌아와잇든중역시 그의양부가 재혼을강권함으로 세상을비관하고 그와가티자살을도모한것이라더라

市內傳染病數

경성시내의 전염병환자는 현재 칠십칠인인데 적리(赤痢) 삼십륙명을필두로 장질부사(腸窒扶斯)가삼십일명이바 본뎡서관내 삼십팔명 동대문서관내가 열명룡산서관내가열명 서대문서관내 가한명 이라고

芙江青年夜學 충북부강

충북부강청년회(忠北芙江青年會)에서는 당디무산자(無產者)를위하야오는팔월일일부터로동야학을개시하기로하엿다는데 희망자는칠월삼십일일까지 본회로 입학원서를제출하기를바란다 하며야학장소와교사는일에와갓다고(부강)

一、장소 조선일보지국
一、교사 양헌채 박리서

婦女誘引하야 遊廓에放賣해

영일군구룡포에서 료리뎜하는리현림(迎日郡九龍浦料理店李賢林)의집에잇는 리종찬(李鍾燦)(三一)은녀자유인전과이범(子誘引前科二犯)으로서 얼마전에 대구형무소(大邱刑務所)에서 출옥하자 즉시그는또한녀자를 유인하야 팔아먹으랴고악심을 먹고서 명치뎡신영길의 안해(明治町申永吉妻)저련이(諸蓮伊)가 병이낫슴으로 그는문병하러갓다가 마참달성군 성북면산격동(達城郡城北面山格洞)서률식(徐栗植)의안해 김향이(金香伊)(三○)가와서잇는데 그의얼골이 아름다움에 눈이어두어그를감언리설(甘言利說)로꾀여가지고 밤중에 부산(釜山)으로다리고가서 엇더한 음식뎜(飮食店)에것다가 륙십원에팔아먹엇든바 이를알게된 그의남편은부산(釜山)까지가서다리고왓든바 종찬(鍾燦)은다리고온것을알고또다시향이(香伊)를차저내여가

휘파람

▲평양설암리(薛岩里)홍도화(洪桃花)라는기생은 지난번 령변(寧邊)사는지모(池某)라는부호청년과정부니 애부니하야 가지고 돈을 막쎄어 먹다가 형사문뎨가 일어나는바람에 한참말성이되더니 ▲금번에는 평남대동군(大同郡)사는최탄업(崔坦業)이란청년의 긔한돈 천원을 또쎄어먹다가 결국은 방금평양경찰서 류치장신세를지엇다▲기생이란 남의돈 잘쎄어먹는것으로 원래 신세를지는 농판하다고하는터이라하지마는 ▲그러타할것이면사긔사(詐欺師)절도(窃盜)와 수가 멀지안흔모양▲이다음부터는기생이란 일홈을사긔생(詐欺生)이라함이 어떨가! ▲황해도신천읍(黃海道信川邑)사는어떤의사(醫師)량반은 조강지처(糟糠之妻)와 사이에 아들이오형제식이나되는데▲그래도신식살림이 하고십허서 그곳에간호부(看護婦)노릇 하려고갓든 평양상수리(上需里)어떤녀자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노릇까지 다녓지마는 품행은조치못하야 원족처녀로아이까지 나흔 신녀성을취하야 살림을 하기로 햇다고 ▲사진결혼을한후 일전 어떤일본려관에서 며번에 부부행세를하얏다고 현숙한본처를 위하야분개아니할수업다

僧房悲曲
(朝鮮映畫藝術協會) 獨鵬 作 羅雲奎撮影監督 [67]
팔고(八苦) (三)

점심을먹고 난뒤에도영일의긔분(氣分)은이상하엿다

그것은 영일자신도 리해키어려운것이엇다 남이나 혹은 자긔를미워하는증오감(憎惡感)도아니요통쾌도아니요우울(憂鬱)은물론아니엇다 억지로말하면 회의(懷疑)의장막속에서다짐도잡어잡듯비틀거리는자긔의외로운그림자를 영일의젊은 눈이들여다보는막연한번뇌(煩惱)이엇다

『옵바나는들어가요』

은숙은 영일의그괴로운 긔분에서떠나려는드시 작별을고하엿다 영일은에써붓잡으려고 도하지안엇다

『오는일요일에또나오련』

『글세요』

『글세요가아니라 뚝나와야해 일요일마다』

『그럼다음일요일에 또나올테니요』

영일은잠닷든는그날밤을마첫다

『나는무엇때문에……』 나의생활의 어느귀퉁이에 령부인곳이잇다 나는그것을 고독이라고 일홈지어볼수는것이아닌가…… 그래서 나는웨자긔의고독을 늣길때마다 은숙을 련상하는가?

……누의동생이기때문에 아니다 그것은거짓말이다 그러면웨 그의사진갓흔것을 불안히 생각하는가? 아니아니 그래도그밧게 업다 나는벌서전에 은숙에게서 아무것도업다 아모런 야심도 이성(異性)이라는탈을벗기어버린지 오래엇슬터이다』

영일은벼개우에서 머리를좌우로흔들어서모든것을부인(否認)하려하엿다

『그러나은숙은 나의정신생활에 엇저면어이도 발을들여노코간섭하려는존재(存在)가아닌가 만약 친동긔라면그러할가 나는 친동긔가업스니 그엇덜것은 몰을일이다아니나다아니다모도가나를속이는수작이다나는역서은숙에게이성에대한사랑을늣기는것이다그래서괴로운것이다이세상에 나선 시람ㅣ 마지막으로내귀에이러케 들려주지 안헛는가

『애욕(愛慾)의바다를 흘려가는자는 고치를버린는누에와도갓다』

그러타 나는스스로 나를결박하는것이다 나는 내가얽은결박의 줄을풀어야한다 내가싸흔옥을 헐어야한다』

그는자리에서 일어나서 벼개를손에들고 모ㅣ든망념을 쫏기위하야 단좌하엿다

고요히거치는 어둔방을말아그의가슴도 평정하여젓다 평정한생활이 몃날을계속하엿다

영일은 엇던날아츰 일어나든마레 커다란문뎨에 충돌하엿다

래일이 일요일이 아닌가~

『래일은 은숙이가오마구한날이아닌가 내가꼭오라구 한날이아닌가』

이러케생각하매 영일은 반갑고도무서웟다

『아아 나는웨이러케약한가오면오고 가면가도록 래연할것이아닌가 아니다와서는안돼 역시 보지만는것이데일이야 오지못하도록해야해 그만 내가어데로피할가 그러면 긔스것나왓다 오작이나섭섭할가 그러면 편지로나오지말도록귀별을하자』

래일은 네가나오기로 약속한날이지 그러나공교한 일로나는절에잇지못하게되엇다 나왓다섭섭할것을 생각하고이글을급히부치니 나오지 말어다구

이러케 간단한편지를써서 일부러 사랑을튼만안에지보내서 우편으로배달케하고 그는 안심한드시 그이튼날을마지하엿다 그이튼날아츰에 영일에게 배달된 편지중에는 사흘전 일부(日附)가 마즌 은숙의편지가 한장이 잇섯다

『옵바 오는일요일에 나가뵈옵것다는 전 일요일의 지은약속을 어긔게되엿기이편지를올리옵니다기다리지말어주서요 저가약속을어긔는데 는별로히고장이생긴것도아니올시다엇전지옵바를맛나는것이 편가운이상의괴로운일가터서그날은집에서종일하무엇을좀생각해보려합니다』

편지를읽고 영일은 놉흔언덕을치다보고 얼마동안 그런드시 안저잇섯다

『아아 은숙이에게도괴로움이 잇는가 그는나보다 솔직히고백하엿고나 나는웨 그에게거짓사실로 그의오기를 거절하엿슬가 여긔나올대신에 자긔집에 들어안저서 종일히 생각해본다는것은 그무엇일가?』 영일은거의울것처럼 얼크러지는 착잡한생각을 거더치우랴으로 밧그로나가서 놉고 둘은한울을 바라보며 방향업시거닐엇다

少女가溺死
시톄도못차젓다

지난이십이일 오전 열두시경에 평북룡천군 양하면삼교동(平北龍川郡楊下面三橋洞)삼교천도선장(三橋川渡船場)근처에서 사는로동자김룡익(金龍翼)의딸학실(鶴實)(九)이가 부근강변에서 놀다가 거죽엇는데 그때마츰 져헤잇든 열여섯살된 소년이 보고 소리를질러 사람이모엿스나 이미죽은시톄가 어데로갓는지 찻지못하얏는데 이튼날부터 가을려와날뛰며 통곡하는 모양은참으로비참하얏다 더라(양시)

又復少女溺死
목욕하다가

경남삼천포 대방리(慶南三千浦大芳里)에사는 류재연(柳在淵)의둘재딸남례(南禮)라는세살되는아이는 지난이십사일 오후두시경에 대방리압해변에서 동무들과 목욕을하다가 맹렬한파도에쓸려 무참이죽엇다는데 이급보를접한 당디경찰관은대상(大上)공의를대동하고 현장에출동하야 응급수당을하엿스나 결국생명은건지지못하엿다 더라

仁川路上强盜

지난 이십오일오전 한시경에인천궁뎡(宮町) 삼복(三福)이라는료리집에 묵고잇는학죽요시고(鶴竹ヨシコ)란열여덟살된처녀가 동무한명과가티 활동사진구경을하고 월미도(月尾島)에잇는 전긔삼복료리뎜으로돌아가서 자려고 인천역(仁川驛)압매립디(埋立地)부근길을건너든때에 별안간 일본복색을 한청년한명이 나타나서 요시고의 손을비틀고 손목시계(金側腕卷時計)를빼아서가지고 그때마츰으슥한곳에서망을보고잇든자와가티 어대로 도망을하얏다는바소관인천서(仁川署)에서 범인수색에 진력중이며더욱 당서관내 소사(素砂)부근에 몽강도가잇섯스며 또 도산뎡(桃山町)에시국표방강도등 사건이잇슨이때이라 더욱중대시하야 일사의활동중이라 더라(인천)